

# 2018학년도 논술전형 문제 해설

## 인문사회계열Ⅱ(오후) 문제 해설

### 1.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 (1) 평가 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합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18학년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 1)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 2) '새로움'이라는 주제어로 각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요구 사항에 따라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여 종합하는 사고력, 3)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입체적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력, 4) 새로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 적용해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는 맥락적 사고력, 5)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현대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그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유추하고 모색해 보는 대안 제시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2)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가지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네 가지 제시문에서 '새로움이 창출된 계기'와 '새로움이 창출된 방식'을 각각 찾아내어 자신의 문장으로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고 종합해야 한다. 새로움은 생활의 필요, 사회 변화에 따른 요구, 낯선 문화와의 접촉, 우연히 받은 영감 등 다양한 계기로 창출되고, 새로움이 창출되는 방식도 다양하다.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장점을 취합하거나 단점을 보완하거나 자신의 인식 체계 속에서 재해석하거나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움이 창출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독해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입체적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력, 2) 새로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 적용해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는 맥락적 사고력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라)와 (마)의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기존의 창작 방식에 대한 학습 여부, 태도 그리고 새로운 창작 방식에 대한 관점의 측면에서 비교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타 요소들을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고유문화를 보전하고 순수 학문과 예술을 진작하는 사회적 분위기, 경직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문 (바)와 (사)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의 논지를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하는 능력과 2) 이를 주어진 문제에 능동적으로 적용 및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아)와 (자)에서 '현대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각각 찾은 후 이를 통합하여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제시문 (아)에서는 개미의 곡선 행보와 노이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것,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려는 자세를 유추해야 한다. 제시문 (자)에서는 현대인들이 빠르게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삶 속에서 느낌의 즐거움, 심심함의 가치를 놓칠 수 있음을 깨닫고 잠시 속도를 늦추고 여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논지를 통합하여, 제시문 (아)의 곡선의 행보에 제시문 (마)에서 강조하는 느낌이 보태졌을 때라야 비로소 피상적인 방향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움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을 이해해야 한다.

## 2.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 『위대한 유산, 한글』, 김종신 외, 『국어II』, 교학사, 2013(2017), 106-107쪽.
- **제시문 (나)** :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복지 정책』, 박선웅 외 『사회·문화』, 금성출판사, 2013(2016), 170쪽
- **제시문 (다)** : 김은산, 『사물의 발견, 부시먼의 콜라병』, 조현설 외 『국어』, 해냄에듀, 2013(2017), 58~59쪽.
- **제시문 (라)** : 빈센트 반 고흐 지음, 신성림 옮김,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관규 외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2013(2017), 234~235쪽.
- **제시문 (마)** : 이규보, 『전이지의 글에 대하여 답하는 글』, 이관규 외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2013(2017), 217~218쪽.
- **제시문 (바)** : 안광복, 『퓨전 문화: 문화 창조의 원리인가, 문화 고갈의 주범인가』, 이도영 외, 『독서와 문법』, 창비, 2013(2016), 226~229쪽.
- **제시문 (사)** : 『장자와 “장자”』, 박병기 외 『윤리와 사상』, 지학사, 2013(2017), 114~115쪽.
- **제시문 (아)** : 이어령, 『젊음의 탄생 \_ 방향 속에 길이 있다』,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미래엔, 2013(2017), 25~26쪽.
- **제시문 (자)** : 이남호, 『느림의 미학』, 이승원 외, 『국어』, 좋은책 신사고, 2013(2016), 94~97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II』(교학사, 2017)의 III단원 ‘우리 말과 글의 어제와 오늘’에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사적 가치를 파악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실린 『위대한 유산, 한글』에서 발췌한 글이다. 한글 창제의 배경과 한글 창제의 바탕이 된 발상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 제시문에는 말과 문자가 다른 데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는 계기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의 언어 이론을 섭렵하여 가장 타당한 생각만을 받아들여 한글을 창제한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 2016)의 4단원 ‘사회 계층과 불평등’ 중 ‘사회복지와 복지 제도’에 실린 『앤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과 복지 정책』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고 복지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제시문 (나)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상이 필요해진 변화된 현실에서 제1의 길과 제2의 길이 내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시장의 자유,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지향하고자 하는 제3의 길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7) 교과서에 실린 김은산의 「사물의 발견, 부시먼의 콜라병」의 일부다. 이 글은 '2. 읽기와 쓰기의 이해' 단원에 제시된 것으로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의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서구 사회의 콜라병이 부시먼 사회에 우연히 떨어지면서 이 생면부지의 물건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에 유용한 쓰임새를 발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이 특정한 문화나 상황 속에서 형성되며, 서로 다른 문화와 그 산물을 접하게 되면 자신들의 인식 체계와 삶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임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비상교육, 2016) 교과서 III단원 '독서와 생활'의 '더 읽을거리'에 실린 빈센트 반 고흐의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인 "균형 잡힌 지식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분야의 글을 종합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와 관련된 읽기 자료로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가 실린 것이다. 이 글에서 고흐는 다양한 색채가 조화를 이룬 자연 풍경으로부터 받은 강렬한 인상을 그려 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기존의 체제나 화법을 답습하지 않고 풍경이 건 말을 받아적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비상교육, 2016) 교과서 III단원 '독서와 생활' 중 '독서의 역사'에 실린 이규보의 「전이지의 글에 대하여 답하는 글」의 일부다.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달랐음을 이해하고, 시대에 따른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며 글을 읽는다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고려해, 고려 시대의 독서 문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이규보의 글을 실은 것이다. 교과서에 실린 글은 전이지가 이규보의 문학에 대해 편지를 보내자 이규보가 그 답장으로 쓴 편지글로, 이 글에서 이규보는 소동파 등 옛 시인의 글을 모방하는 세태를 비판하며 경전과 역사서, 제자백가의 글을 섭렵했으나 그 문체를 본뜨거나 어구를 도용하지 않고 새로운 뜻과 어구를 창조한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였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창비, 2016)의 III단원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중 '독서의 방법'에 실린 안광복의 「퓨전 문화: 문화 창조의 원리인가, 문화 고갈의 주범인가」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는 데 있다. 제시문 (나)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제각각의 고유성을 갖추고 다른 문화 요소들과 부딪치고 뒤섞일 때 새로운 문화 코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퓨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지학사, 2017) 교과서 II단원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중 '도가·도교 윤리 사상'에 실린 「장자와 "장자"」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도가·도교 윤리 사상이 제시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데 있다. 제시문 (사)는 선입견과 편견, 자신의 가치와 인식 체계는 항상 옳다는 아집을 버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 사물 본연의 가치를 인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미래엔, 2017) 교과서에 실린 이어령의 「젊음의 탄생 - 방향 속에 길이 있다」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1. 독서의 본질' 단원에 실린 것으로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사회적 소통 및 지식 창출 행위로서의 독서의 특징을 이해하고, 독해 원리를 바탕으로 독해의 과정, 방법 등을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글을 읽는 데에 있다. 이 글은 먹이를 찾기 위해 곡선으로 이동하는 개미의 행보가 언뜻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이나 실상은 직선의 경로로 이동할 때보다 먹이를 발견할 확률을 높여준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것,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했던 효과를 가져오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 신사고, 2016) 교과서에 실린 이남호의 「느림의 미학」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3. 삶을 채우는 똑똑한 독서' 단원에 실린 것으로,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험과 지식,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글을 읽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이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림의 즐거움, 심심함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면서, 독서, 명상, 여행, 휴식 등과 같은 여유의 시간이 상상력과 세밀한 관찰을 통해 우리 삶에서 간과했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체험하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 3.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새로움’이 창출된 계기와 방식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새로움이 창출되는 계기와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가)에서 한글은 표현의 어려움을 느끼는 백성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타국의 언어 이론을 섭렵한 뒤 타당한 요소들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나)의 제3의 길은 현실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를 보완하면서도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의 통합을 통해 만들어졌다. (다)에는 경험과 지식이 다른 타 문화로부터 온 낯선 사물과의 우연한 접촉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인식 체계와 문화 토양에 맞는 쓰임새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대상이 새롭게 재발견된 사례가 나타나 있다. (라)에서 새로운 방식의 그림은 자연에서 얻은 강렬한 인상이 계기가 되어, 기존의 방법이나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받은 느낌 그대로를 순간적, 직관적,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탄생했다. 이처럼 새로움은 생활의 필요, 사회 변화에 따른 요구, 낯선 문화와의 접촉, 우연히 받은 영감이 계기가 되어, 기존의 장점을 취합하거나 단점을 보완하거나 자신의 인식 체계 속에서 재해석하거나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진다. (565자)

**[문제 2] 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새로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문 (바)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와 (마)의 화자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비록 결함이 있고 어색하더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기존 창작 방식에 대한 학습 여부와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라)의 화자는 당시 통용되던 화법인 유희가 자신이 받은 인상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해 이를 배우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 (마)의 화자는 당시 창작의 바탕이 되던 옛 시인의 문체를 배우기는 했으나 이를 자신의 창작에 모방하는 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긴다. 새로움이 현대 사회에서 계속 되려면 (바)의 로마처럼 타 요소들을 수용·융합하려는 개방적인 자세와 함께, 융합의 재료가 되는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고유문화를 보전하고 순수 학문과 예술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한편, 사회 구성원들이 (사)의 원숭이 사례처럼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여기거나, 왕이 바닷새를 대하듯 새로움을 자신의 틀로 받아들인다면, 본연의 가치가 상실되고 창의성마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569자)

**[문제 3]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현대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제시문 (아)와 (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아)에 따르면 개미의 어지러운 곡선 행보는 먹이를 찾는 데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노이즈처럼 보이지만 불가피한 자연현상으로서 먹이를 찾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최단거리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효과를 낳기도 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곡선의 행보가 피상적인 방향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에 나타난 것처럼 잠시 속도를 줄이고, 목표만을 향해 질주할 때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상상력과 세심한 관찰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자연의 법칙이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414자)

## 4. 채점 기준

### [문제 1] 40점 만점

####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새로움이 창출된 계기'와 '새로움이 창출된 방식'을 각각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만점)

(가) 계기 : 문자와 말이 달라 불편함을 느낀 것이 한글 창제의 계기가 됨 (4점)

방식 : 여러 나라의 언어 이론을 섭렵한 뒤 타당한 요소들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한글이 창제됨 (4점)

(나) 계기 :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어 '제3의 길'이 만들어짐 (4점)

방식 :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의 통합을 통해 새로움이 만들어짐 (4점)

(다) 계기 : 경험과 지식이 다른 타 문화로부터 온 낯선 사물과의 우연한 접촉이 계기가 되어 콜라병의 용도를 새롭게 발견함 (4점)

방식 : 자신의 인식 체계와 문화 토양에 맞는 쓰임새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대상이 새롭게 재발견됨 (4점)

(라) 계기 : 자연 풍경에서 얻은 강렬한 인상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그림이 탄생함 (4점)

방식 : 기존의 방법이나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받은 느낌 그대로를 순간적, 직관적,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그림이 탄생함 (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계기와 방식을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계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계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계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새로움이 창출된 계기’와 ‘새로움이 창출된 방식’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서론** : 제시문 (가)-(라)에는 새로움이 창출되는 계기와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론** : 이와 같이 새로움은 생활의 필요, 사회 변화에 따른 요구, 낯선 문화와의 접촉, 우연히 받은 영감이 계기가 되어, 기존의 장점을 취합하거나 단점을 보완하거나 자신의 인식 체계 속에서 재해석하거나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진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계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공통점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10점) : 2~10점**

제시문 (라)와 (마)의 두 화자는 모두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공통점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2~5점 부여
-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공통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6~10점 부여

**2)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10점) : 2~10점**

두 화자는 기존 창작 방식에 대한 학습 여부와 태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라)의 화자는 유희가 자신이 받은 인상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우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 (마)의 화자는 옛 시인의 문체를 배우기는 했으나 이를 자신의 창작에 모방하는 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긴다.

-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2~5점 부여
-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6~10점 부여

**3) 새로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문 (바)와 (사)를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했는지 평가한다. (20점) : 4~20점**

- ① 제시문 (바)의 논지 파악 : 타 요소들을 수용하고 융합하려는 자세와 함께, 융합의 재료가 되는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고유문화를 보전하고 순수 학문과 예술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② 제시문 (사)의 논지 파악 :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사)의 왕처럼 새로움을 자신의 틀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본연의 가치가 상실되고 창의성마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둘 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4~6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정확히 파악한 경우, 7~13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14~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와 (마)에 나타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공통점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10점) : 2~10점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공통점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2~5점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공통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6~10점
	② (라)와 (마)에 나타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10점) : 2~10점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차이점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2~5점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창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6~10점
	③ 새로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문 (바)와 (사)를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했는지 평가(20점) : 4~20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둘 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4~6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했을 경우	7~13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14~20점	

### [문제 3] 20점 만점

####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에 따르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최단거리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곡선, 노이즈)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효과를 낳기도 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자)에 따르면 잠시 속도를 줄이고, 목표만을 향해 질주할 때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상상력과 세심한 관찰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자연의 법칙이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16점) : 4~16점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둘 다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경우, 2~3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하나만 정확히 파악한 경우, 4~6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7~8점 부여

### 2) 8점) : 2~8점

- 자세와 효과를 둘 다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경우, 4~6점 부여
- 자세와 효과 중 하나만 정확히 파악한 경우, 7~12점 부여
- 자세와 효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13~16점 부여

3) (아)의 곡선의 행보가 피상적인 방향에 그치지 않고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에 나타난 것처럼 잠시 속도를 줄이고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점) : 1~4점

- (아)와 (자)의 논지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경우, 1점 부여
- (아)와 (자)의 논지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경우, 2~4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아)와 (자)에서 현대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효과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평가(16점) : 4~20점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를 둘 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4~6점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했을 경우	7~12점
		제시문 (아)와 (자)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13~18점
	② (아)와 (자)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했는지 평가(4점) : 1~4점	(아)와 (자)의 논지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경우	1점
		(아)와 (자)의 논지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경우	2~4점